

‘셔틀콕 여제’ 안세영, 올 세계 최고의 선수 유력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이 지난 9월30일 중국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손가락을 들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

오늘 중서 올해의 선수 발표
우승 11회… 경쟁 후보 압도
월드 투어 파이널스도 출전
2년 만에 정상 탈환 도전장

광주체고 출신 ‘셔틀콕 여제’ 안세영(21·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부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세계 대회의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 투어 파이널스 우승도 노린다.

10일 BWF에 따르면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이 1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 갈라 디너’ 행사에서 진행된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6), 3위 중국의 천위페이(25)와 함께 ‘2023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에 올랐다. 안세영의 수상이 유력하다. 안세영은 평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14개 대회에서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결승에 올랐고 우승 11회(2022년 11월 호주오픈 포함)를 차지했다.

지난 3월 세계 최고 권위인 전영오픈에서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8월 BWF 세계랭킹에서 1996년(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단식 1위에 등극한 데 이어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한국 단식 종목 최초 신기록을 작성했다.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단체전과 여자단식을 석권했다.

경쟁 상대인 야마구치는 평가 기간 동안 총 5개 금메달, 천위페이는 3개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안세영이 수상 실적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안세영이 이번에 수상하게 될 경우 한국 배드민턴은 20년 만에 ‘BWF 올해의 선수’를 배출하게 된다. 한국은 2002년(김동문), 2003년(김동문-라경민) 2년 연속 수상 이후 올해의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2019년 ‘올해의 가장 유망한 선수(신인상)’에 선정된 안세영은 신인상-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한 국내 최초 선수의 주인공이 된다.

한국은 안세영과 함께 서승재(남자 선수), 서승재-채유정(혼합 복식), 김정준(남자 장애인 선수)을 후보로 배출했다. 서승재는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 2관왕에 올랐고, 채유정은 서승재와 2003년 김동문-라경민 이후 20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혼합 복식 우승을 합작했다. 김정준은 장애인 배드민턴 WH2 등급에서 20개의 메달을 사냥하며 남자 단식 랭킹 2위에 올랐다.

안세영은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왕중왕전인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3’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

드 투어 파이널스 2023’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여자 단식과 남자 단식, 여자 복식, 남자 복식, 혼합 복식 등 5개 부문에서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8명(팀)이 출전한다.

한 국가에서 부문별 2명 또는 2팀까지 출전 가능하며 2개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뒤 4강 토너먼트를 실시해 왕중왕을 가린다.

안세영은 2021년 이후 2번째 우승을 노린다. 2021년 당시 대진 운에 힘입어 생애 첫 파이널스 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에는 세계 1위 자격으로 대회에 나선다.

관건은 부상 후유증 극복이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힘줄 파열 부상을 입은 뒤 회복했지만 복귀 후 출전한 2개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했다. 왕중왕전 전까지 예전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우승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안세영과 김가은(삼성생명)이 여자 단식, 이소희(인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김소영(인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여자 복식, 서승재(삼성생명)-강민혁(삼성생명)이 남자 복식, 서승재-채유정(인천공항)·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이 혼합 복식에 도전한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영국행’ 이정호 감독, 광주FC에 어떤 전술 입힐까

돌풍 브라이튼 경기 관전
박원교 분석 코치 동행
여행 경비 전액 자부담

‘돌풍의 주역’ 이정호 광주FC 감독의 욕심이 끝이 없다. 광주의 첫 아시아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감독은 오는 13일 박원교 분석 코치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 새로운 전술 연구에 나선다.

10일 광주FC에 따르면 이 감독이 오는 13일 오전 박 코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한다.

이 감독과 박 코치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잉글랜드 브라이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FC와 올림피크 드 마르세

유의 2023-2024 UEFA 유로파 리그 B 조 예선 6차전 현장을 찾는다.

이어 17일 오후에는 잉글랜드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아스널 FC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FC의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를 지켜본 뒤 20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다. 지난해 9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토트넘 홋스퍼 FC와 첼시 FC 등 강호들을 제치며 2022-2023시즌 6위에 올랐고, 올 시즌도 15라운드까지 8위로 순항하고 있다.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 등을 중시하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전술은 광

주의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감독은 브라이튼과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자주 시청하며 전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최근에도 전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축구 전문 미디어 베스트 일레븐이 신설한 ‘BE. !CON 어워드(비아이콘 어워드)’에 참석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능력을 더 키우는 것밖에 없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 감독은 확고한 축구 철학과 혁신적 리더십, 탁월한 동기부여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미디어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며 K리그에 화두를 던졌고, 팬들에게는 용기와 긍정의 힘을 전달하며 올해 축구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지난 6일 서울 카포풋볼스토어 동대문점에서 열린 ‘BE. !CON 어워드(비아이콘 어워드)’에 참석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베스트 일레븐 제공

그럼에도 더 뜨거운 아이콘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이 감독은 전술 연구에 동행할 박 코치를 위해 경비 전액을 자부담

했다. 자신의 오른팔과 함께 영국까지 동행해 내년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순천시유도회, 몽골유도팀 초청 유도 우호교류

4~10일 순천시 유도스토브리그
몽골·국내 우수팀 300여명 참가

순천시유도회가 몽골유도팀을 초청해 우호교류를 다졌다.

10일 순천시유도회에 따르면 순천시유도회는 4~10일 순천에서 개최된 ‘2023 유도 스토브리그’에 몽골유도팀을 초청해 교류전 및 합동훈련을 펼쳤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순천시유도회가 주관하는 2023 유도스토브리그에는 몽골선수단 25명을 비롯해 국내 우수팀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단은 실전 훈련과 합동훈련을

통해 유도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의 기회도 가졌다.

몽골 오르후즈 부지사와 체육회장, 유도회장 등 임원 5명과 지도자 5명, 선수 15명으로 구성된 몽골유도팀은 유도 스토브리그 참가와 더불어 순천대에서 오르후즈간의 협력 등 교류확대를 논의했다.

또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검사, 부상 예측 시스템을 체험하며 K-스포츠과학의 우수성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몽골유도팀 단장으로 방문한 미세그 투 멘자르갈 몽골 오르후즈 부지사는 “한대

를 해준 순천시 유도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몽골 유도가 한층 더 성장할수 있을 것 같다. 더 넓은 교류 발전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청 유도팀은 지난 6일 순천마리나컨벤션에서 열린 ‘2023 유도 스토브리그’ 몽골 유도 및 우수팀 초청 합동훈련 환영만찬 행사에서 지역 유도선수 육성지원금을 순천시유도회에 기탁했다.

박다솔·양서우·김지정·신지영·김혜미 선수로 구성된 순천시청 유도팀은 지난 5년 동안 각종 상금 등을 모아 118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이날 박병수순천시유도회장에게 전달했다.

최동환 기자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시동

경기분야 합동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 3일간 영광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8일 영광스포티움 수영장 2층 다목적실에서 도장애인체육회, 영광군, 경기단체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분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개최계획, 참가요강, 기관별 업무분장, 경기용기구 등 주

요사항이 논의됐고 종목별 경기장 실사를 통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등 사용 가능 적합여부를 통해 경기장을 최종 선정했다. 또 경기장별 경기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종목단체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함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게이트볼, 골볼, 당구,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조정, 축구, 탁구, 파크골프, 양궁, 댄스스포츠, 태권도, 승마, 테니스, 펜싱 등 총 21개 종목에 1만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